

트럼프, "대만 무기판매 방침 실행할지 아직 미정...결정할 것"

등록 2026.05.15 20:29:33 | 수정 2026.05.15 22:09:10



[베이징=AP/뉴스시스] 방중 일정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(현지 시간) 중국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서 귀국편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. 2026.05.15.

[베이징=AP/뉴스시스] 김재영 기자 =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5일 사흘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오는 귀국 비행기에서 대만에 100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팔기로 한 방침을 진행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.

트럼프는 이어 기자들에게 "확정 지을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미 여당 공화당은 행정부의 대만 대형 무기판매 계획을 승인했으나 트럼프는 아직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. 중국은 110억 달러 상당의 이 대만 무기 판매를 반대해왔다.

특히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대만 문제에 최대의 초점을 맞춰 미국이 중국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면 양국이 폭력 분쟁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.

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이번 회동에서 시 주석이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뒤 "나는 그저 듣기만 하고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"고 덧붙였다.

